

# 챔필 관중석 열리자마자 KIA-LG 4위 쟁탈전

## T 타이거즈 전망대

타격 침체·수비 불안·마운드 흔들  
지난주 1승 3패...5위로 추락

이번주 LG·NC와 홈 6연전  
4위 LG와 한게임 차 박빙  
관중 첫 입장...기대 부응 책임 막중

■ KBO 중간순위 (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71	45	2	24	0
2	키움	75	44	0	31	4
3	두산	73	42	0	31	5
4	LG	73	40	1	32	6.5
5	KIA	70	38	0	32	7.5
6	KT	71	37	1	33	8.5
7	롯데	70	35	0	35	10.5
8	삼성	73	35	0	38	12
9	SK	74	24	1	49	23
10	한화	74	19	1	54	28

‘호랑이 군단’이 홈팬들 앞에서 4강 테스트를 받는다.

KIA 타이거즈에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다.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무관중’을 유지했던 챔피언스필드가 4일 LG 트윈스전을 시작으로 드디어 관중을 맞는다.

LG와 주중 3연전을 갖는 KIA는 주말에는 NC 다이노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6연전을 치른다.

지난주 3위 자리에서 시작한 KIA는 2일 롯데전 0-8 영봉패와 함께 5위로 한 주를 마감했다. 비로 두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남은 4경기에서는 1승 3패가 기록됐다.

침체 분위기 속에서 KIA는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게 됐다.

KIA의 패배가 쌓이는 사이 LG가 4위 자리를 차지했다. 주중 맞대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자리가 달라진다.

LG와는 올 시즌 가장 적은 세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 앞선 대결에서는 LG가 위닝시리즈를 가져갔다.

주말에 만나는 NC는 선두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강적’. 그러나 위안거리는 올 시즌 NC에 유일하게 상대전적에서 앞선 팀이 바로 KIA라는 점이다. KIA는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박찬호



나주환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4강 가능성을 점쳐보게 되는 무대, 내야 재정비와 수비 강화가 시급하다.

KIA는 지난주 4경기에서 무려 9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수비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선빈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공·수에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8타석에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기록했고, 두 타석은 삼진으로 물러났다. 수비에서도 감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기록으로 남은 실책은 하나였지만 아쉬운 수비 장면이 몇 차례 노출됐다.

베테랑의 투혼을 보여주던 나주환도 두 경기 연속 실책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유격수 박찬호의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주 박찬호가 14타석에서 생산한 안타는 하나. 삼진은 무려 7개나 기록했다. 볼넷은 하나도 없었다.

1일 초반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번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삼진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타격 부진은 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박찬호는 최근 세 경기에서 연속 실책을 남기며 내야에 고민을 더했다.

마운드에서도 마음이 급하다. 지난 30일 KT전에서 양현종이 마운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도루 저지 과정에서 약속 구까지 기록했다.

31일 롯데전에서는 전상현의 실책이 남았다. 3-1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투입된 전상현이 볼넷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냈다. 이어진 한동희의 땅볼 때 공을 직접 잡은 전상현이 2루로 송구하면서 병살타가 기록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송구가 빛나가면서 아웃카운트 대신 주자만 늘었다.

이어 마차도의 적시타로 1점 차까지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과는 지난주 KIA의 유일한 승리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팬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실수였다.

강적들과의 승부인 만큼 ‘세밀함’이 중요하다. 선수비 후공격으로 지난주 부진을 털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줘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기록의 중심에 ‘브룩스’

시즌 유일 무사사구 완봉승...외국인 투수 최다이닝 무볼넷 신기록

### KBO 전반기 마감

코로나19를 딛고 시작된 KBO리그가 지난 1일 395경기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무관중으로 리그가 진행됐지만 그라운드와 열기는 뜨거웠다. 다양한 기록들도 만들어졌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전반기 마지막 승리투수가 된 브룩스가 ‘전반기를 빛낸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이다.

브룩스는 7월 31일 롯데 원정경기에서 8이닝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시즌 6승에 성공한 브룩스는 올 시즌 유일무이 무사사구 완봉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브룩스는 지난 6월 10일 KT와의 원정경기 선발로 나서 5이닝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좋은 피칭을 선보였다. 그리고 KIA가 10-0으로 크게 앞선 채 5회가 끝났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우콜드가 선언됐다. 이와 함께 브룩스에게는 행운의 ‘무사사구 완봉승’이 돌아갔다.

공격적인 피칭을 자랑하는 브룩스는 외국인 투수 데뷔전 이후 최다 연속 이닝 무볼넷 신기록도 같이 세웠다.

5월 6일 키움전을 통해 KBO리그에 데뷔한 브룩스는 이 경기를 시작으로 5월 23일 문학 SK전

까지 21.1이닝 동안 볼넷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2011년 롯데 코리가 세운 20이닝보다 앞선 무볼넷 기록이다.

한화 서포터들도 완봉승 기록에 이름을 남겼다. 서포터는 5월 5일 문학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외국인 선수 최초로 개막전 완봉승을 기록했다. 또 이 경기는 2시간 6분 만에 종료되면서 종전 2시간 11분이었던 역대 개막전 최단 시간 기록도 5분 단축했다.

타석에서는 김선빈이 전반기 기록에 이름을 남겼다. 김선빈은 7월 1일 한화전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 3안타를 이어가면서 통산 11번째 최다 연속 경기 3안타 타이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KIA 유민상은 ‘형’ KT 유원상과 15년 만의 기록을 합작했다.

두 사람은 5월 26일 수원경기에서 적으로 만나면서 KBO리그 두 번째 ‘형제 투타 대결’ 기록을 남겼다. 이는 1995년 9월 5일 투수 정명원(태평양)과 타자 정학원(쌍방울) 이후 15년 만의 기록이다.

한편 5경기 중 3경기가 ‘끝내기’로 종료됐던 7월 21일. 이날 각각 창원원과 대전에서 삼성 김윤수와 ‘형’ 한화 김범수가 나란히 패전투수가 되면서 KBO리그 최초 동일일자 형제 투수 패전 기록도 작성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볼? 스트라이크? 로봇에게 물어봐

### 퓨처스리그 오늘부터 시범운영

퓨처스리그에 ‘로봇심판’이 등장한다. KBO는 3일 “퓨처스리그 경기 대상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을 4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판 판정의 정확성 향상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로봇심판’ 운영 장비와 시스템은 퓨처스리그 구장 중 마산 야구장과 LG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 설치됐다.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26경기에서 로봇심판이 운영될 예정이다.

두 구장에 설치된 로봇심판 전용 투구 트레이 시스템에 따라 총 3대의 카메라가 사전 측정된 마운드, 홈 플레이트, 베이스 등 고정 그라운드 위치 정보를 토대로 투구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타자별

로 설정된 스트라이크존 통과 시 해당 투구의 위치를 측정, 볼과 스트라이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투구별 판정 결과는 로봇심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심심이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된다.

주심은 음성 수신 결과에 따라 수신호로 볼판정을 내리게 된다. 볼판정 이외의 모든 심판 판정 상황은 기존 경기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KBO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로봇심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후 데이터 분석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KBO리그의 로봇심판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토머스, 되찾은 ‘세계 정상’ 다가선 다니엘 강

## 토머스, 2년만에 WGC 세인트루드 정상 PGA 통산 13승...페덱스컵·상금랭킹 1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황금세대’의 주역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우승 상금 21억원짜리 특급대회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 루드 인비테이셔널에서 역전 우승, 통산 13승 고지에 올랐다.

토머스는 3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 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몰아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우승했다.

공동 2위 그룹을 3타차로 따돌린 토머스는 이번 시즌 3번째 우승으로 페덱스컵 랭킹 1위와 상금랭킹 1위를 굳게 지켰다.

1993년생 동갑인 조던 스피스, 잰더 쇼플리, 다니엘 버거(이상 미국) 등 ‘PGA투어 황금세대’의 일원이 토머스는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통산 13승을 달성했다.

4타차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토머스는 9번 홀까지 버디 4개를 잡아내며 우승 경쟁에서 앞서나갔다.

12번 홀(파4) 보기로 한때 5명이 공동선두를 이루는 혼전에 휘말렸지만 15번(파4), 16번 홀(파5) 연속 버디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8년에 이어 이 대회 두 번째 우승을 거둔 그는 지난달 13일 워크데이 채리티오픈 연장전 패배 아쉬움도 말끔하게 씻어냈다.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최근 부진했던 디펜딩 챔피언 브룩스 켈카(미국)는 토머스와 우승 경쟁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켈카는 17번 홀(파4) 버디로 1타차로 따라붙었지만 18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내 단독 2위 자리를 놓쳤다.



지난 6월 만 50세 생일을 지낸 필 미켈슨(미국)은 3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2위 그룹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토했다.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기대를 모았던 안병훈은 난조 끝에 3타를 잃고 공동 12위(8언더파 272타)로 내려앉았다.

3오버파 73타를 친 임성재와 2타를 잃은 강성훈은 공동 44위(2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5개월만에 재개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대회 초대 챔피언 올라... ‘TOP 3’ 정조준

재미교포 다니엘 강이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다니엘 강은 3일 미국 오하이오주 탈리도의 인버네스 클럽(파72-6856야드)에서 열린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총상금 100만달러)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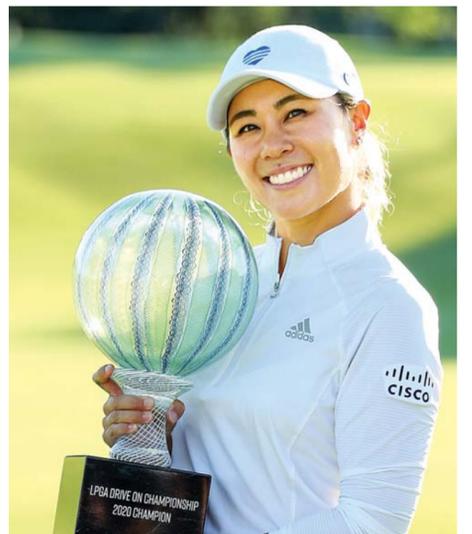
최종합계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한 다니엘 강은 셀린 부티에(프랑스-6언더파 210타)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15만 달러(약 1억 8000만원).

이로써 다니엘 강은 2017년 7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2018년과 2019년 10월 뷰익 LPGA 상하이에 이어 LPGA 투어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LPGA 투어가 2월 16일 호주주자오픈 이후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에 시즌 재개를 알린 대회였다. 코로나19 탓에 연이은 대회 취소로 일정이 줄어들면서 선수들에게 실전 기회를 주고자 신설된 대회로, 다니엘 강은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세계랭킹 4위로 이 대회 출전 선수 중 넬리 코르다(미국-2위)에 이어 가장 높았던 다니엘 강은 1라운드 단독 선두, 2라운드 공동 선두에 이어 마지막 날까지 리더보드 맨 위를 지키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다니엘 강과 부티에에 이어 이민지(호주)가 3위(4언더파 212타), 가와모토 유리(일본)가 4위(3언더파 213타)에 올랐



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 등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 선수 중에는 박희영이 3오버파 219타, 공동 20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2라운드 공동 10위였던 박희영은 이날 보기만 4개를 적어내며 순위가 하락했다. 신지은과 곽민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28위(4오버파 220타), 전지원(23)은 공동 40위(5오버파 221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